

#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비’...진도군,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 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진도군보건소·진도경찰·진도소방 기관간 역할·협업사례 통한 문제점과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진도군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군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를 최근 개최했다.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는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진도군보건소,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등 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보건소, 경찰, 소방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각 기관간 역할, 협업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및 자살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자살 예방 적극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생되어 환자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540-6934).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안전과 치료를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군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 해남군, 515개 전체 마을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환경오염 초래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 후 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

해남군이 관내 515개 전체 마을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한다.

군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 재활용하기로 했다.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물이나 젤타입의 고흡수성수지로 만들어진다. 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아이스팩은 사용 후 물을 비우고 팩 봉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지만, 고흡수성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가 막히고, 불에도 잘 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사무소에는 아이스팩 분리배출함을 비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아이스팩 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해 모아두면 청소차량이 수거해 가고 있다.

이번에 수거함을 515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해 아이스팩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거 대상이 되는 아이스팩은 비닐 포장된 젤 타입 아이스팩이며 종이 포장이나 파손 또는 오염된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없어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함에 모인 것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세척한 뒤 지역내 전통시장, 식당, 식품업체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전달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해남=기동채본부

## 강진군,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화 핵심전략 교육 성료

### 사례발표와 브랜드 핵심전략 특강,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 역량강화



강진군은 지난날 3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품목별연구회원과 관내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화 핵

심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진 최초의 차 브랜드인 백운옥판차에 대한 이현정 이한영차문화원장의 사

례발표를 시작으로 농업 소득향상을 위한 브랜드의 중요성과 핵심전략에 대한 정동완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동완 소장은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화 핵심기술 12가지에 대해 설명하며 “브랜드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짧은 시간 안에 농업 소득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1차산업 중심군으로 최고의 농산물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가공, 포장, 유통 분야를 적극 지원해 농업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강진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총 52개 연구회 1,4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로 담당 지도사를 지정해 교육훈련, 연찬회, 연구, 기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지역농산물 고급화와 협업을 통한 가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3년에는 품목별연구회 군 단위 연합회를 구성해 강진농업 소득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 육성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 11월 30일까지 숨은 관광 자원 발굴

완도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및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 맛집, 카페, 숙박업소 등 완도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고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광 사진 공모전 주제는 완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은 2021년 1월 이후 촬영되고, 미 발표작이어야 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

능하며, 1인·1팀 당 3점 이내 출품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완도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과 이메일(xogns2154@korea.kr) 접수도 가능하다.

12월 초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12월 중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점(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2점(상금 50만 원), 우수상 8점(상금 30만 원), 장려상 10점(상금 20만 원), 입선 30점(상금 10만 원)으로 총 51점이다.

완도=기동채본부

## 장흥군, ‘달라진 업무보고회’ 지역현안 해결 초점

장흥군이 업무보고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나섰다.

달라진 업무보고회는 군정 현안해결 또는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단일 주제를 정해 부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군정의 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간 소관 부서장이 현안을 보고하고 군수가 개별 사안에 대해 지시하던 방식으로 업무보고회를 운영해왔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업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군정의 안정성을 높여 민

선8기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김성 장흥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장흥군은 1일 처음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문화관광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시책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실과소,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가 참여하여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신규 시책 및 기존시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